설화와 민속예술에 깃든 민중의 삶

「설화작품…」「한국민속…」 동시에 펴낸 임재해 교수

민속학계의 대표주자로 주목받으며 왕성한 저술과 연구활동을 해오고 있는 안동대 민속학과 임재해(40)교수가 최근 「설화작품의 현장론적 분석」(지식산업사)과 「한국민속과 전통의 세계」(〃) 두 권을 동시에 상재했다.

지난 81년 자신의 석사학위논문 '꼭두각시놀음의 갈등양상'을 책으로 묶은 「꼭두각시놀음의 이해」(홍성사)로 석사논문으로는 드물게 일반독자의 화제를 불러모은 바 있던 그는 이후 「민속문화론」「한국민속학의 과제와 방법」「안동문화의 재인식」「한국의 민속예술」「구비문학대계」(7~9권) 등 자작이나 공저 혹은 편저로 묶어낸 결코 만만치 않은 양과 내용의 저술들로 그 부지런함이 이미 정평나 있는 少壯학자이다.

첫째권 이후 꼭 10년이 흐른 올해 묶어낸 두 권 가운데 먼저 「설화작품의 현장론적 분석」은 구비전승되는 민속문화의 한 갈래인 설화를 새로운 방법론으로 집중 탐구한 연구서라면, 「한국민속과 전통의 세계」는 그동안 전통문화의 세계를 추적해온 저자의 10여년간의 연구결실을 두루 묶은 평론집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민속학이란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나온 연구물이나 각각 개별의 목적에서 씌어진 독립된 저술인 셈이다.

"앞엣것이 독자적인 이론을 수립해가며 평생을 계속해 천착해나가야 할 주된 분야라면, 뒤엣것은 민속학에 대한 연구가 단순히 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때그때 지면에 발표했던 글들로 구분됩니다"

이는 '민속문화의 계승과 전통의 재창조' '민속예술의 계승과 남북한의 동질성회복' 등의 소제목에서 드러나듯 전통의 계승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분단극복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그의 학문적 지향을 엿볼 수 있게 하는데, 이번 저술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분야는 그가 '평생의 과제'라 공언한 설화연구의 분석틀로 이용한 '현장론적 방법론'일 듯싶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유일의 민속인형극인 꼭두각시놀음 연구로 민속학 분야에 첫발을 내디딘 그가 종국에 설화로 귀착하게 된 까닭은 민속학자인 그의 학문세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설화는, 태초의 신화에서부터 지금 막지어진 농담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예사사람 누구나의 삶의 현장에서 줄기차게 창작되고 전승된 바로 그 '이야기문학'을 말하는데, 이는 꼭두각시놀음이 남사당패들에 의해 전승되거나 하회별신굿이 안동이라는 특정지역의 상민들이 하는 놀이인 것과는 또달리 민중이 주체이되 일부가 아닌 전체가 이야기의 창작자이자 전승의 주체로 모두에게 열려있는 문학형태입니다. 따라서 동시대사람들의 공통된 정서가 배어 있고, 그들의 생활과 생각이 담겨있는 민중문학사이자 곧 역사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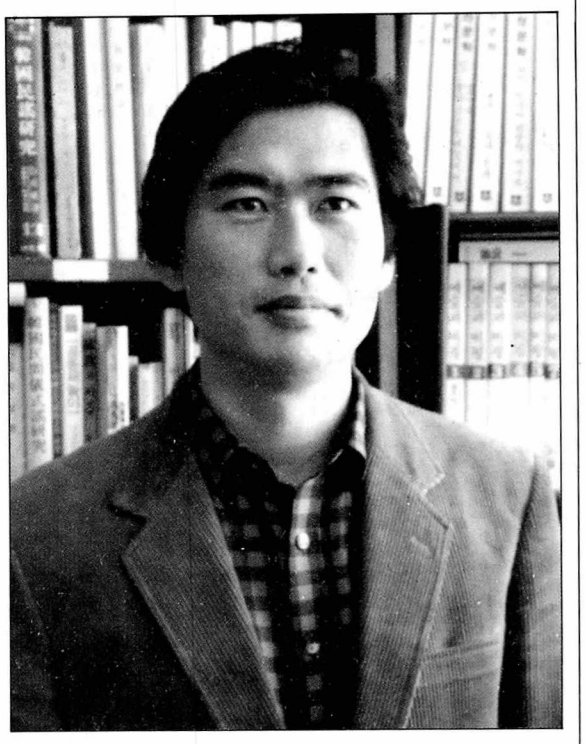
기층민중들의 삶과 사상이 무르녹아 있는 설화에서 민족의 특질을 규명해내고자 하는 그에게 설화작품 자체는 물론 그것이 전승되는 현장, 연행현장, 이야기꾼, 듣는이로 연구의 방향이 나뉘고, 다시 그것을 한데 아울러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현장론적 방법론의 선택은 어쩜 당연한 요구였을 수 있겠다.

결국, 역사적 흐름과 사회적 실천에서 민속학 연구가 분리되어선 안된다는 그의 생각은 글로써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지역문화의 현장에 직접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안동문화연구회가 7년째 월1회로 마련하는 시민강좌의 주요연사일 뿐만 아니라 참꽃문학회, 놀이패 둥근, 노래패 햇살 등의 모임에 관여하는 한편 뜻있는 지역민들이 갹출해 펴내는 「안동」지의 편집위원으로 직접 제작에 참여하는 예가 그것이다.

"학문은 전통적인 것을 하고 있으나 연구의 수단은 첨단을 수용한다"는 파격적이나 신선한 발언대로 그는 집과 연구실에 각각 한 대씩 컴퓨터를 두고 있는데, 이는 잠시도 가만있지 못하고 일거리를 찾아다니는 이 민속학자의 열정을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원래 일거리를 쌓아두어야 "신명이 난다"는 그는 이번 책의 후속타로 「민족설화의 논리와 의식」「설화의 전승과 마을공동체」「설화의 변이와 이야기꾼」 등 민속학일반과 설화관계 연구에 관한 모두 7권의 책을 지식산업사와 기획해놓고 있다.

——정혜옥 기자

구비전승되는 민속문화의 한갈래인 설화를 새로운 방법론으로 탐구한 것과 10여년간 우리 전통문화의 세계를 탐구해오며 발표했던 글들을 묶은 평론집으로 구별되는 이번 두 저술에서 저자는 민속학의 연구가 역사의 흐름과 사회적 실천에서 결코 분리되어 있어서는 안됨을 강조하고 있다.



임재해교수.

"한솔과 손잡으시면 편집자 10명을 얻는 셈입니다!"

❖제 작 대 행 : ❶일손이 달리신다구요? 대신 뛰어 드리겠습니다.
❷원고가 있으시다구요? 책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CONVERSION (변환) : PC로 입력한 디스켓만 가져오시면 편집상태인 교정→인화→필름으로 처리해 드립니다.

❖원 고 은 행 : 출판 원고접수, 출판 원고 지원해 드립니다.

한솔기획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4번지 옥빌딩 706호
TEL : 735-4997 FAX : 739-8791